

# 산·학·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통령경호실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조 광 래\*

## <목 차>

- I. 서론
- II. Security 업계와 학계의 실태 및 문제점
- III. 대통령 경호실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
- IV. 결론

## <요 약>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공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 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경호, 경비, 대통령경호실, 민간경비, 경호교육프로그램】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 I. 서 론

2005년 6월 현재 총 2,810개(법인 수 2,418개)의 경비업체가 운영되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경비원의 수는 11만 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경비원의 숫자나 민간경비업체의 장비의 수준은 공경비의 그것을 뛰어 넘고 있다. 이러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민간경비의 역할이 어떠한든, 또는 민간경비의 법적 권한이 어떠한든 간에 이미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없는 국가치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국가치안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현재 40여개 대학에서 security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추가로 학과를 개설하겠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urity 관련 학과의 강사와 전임급 교수도 수 백 명이나 되며, 졸업생과 재학생의 숫자 역시 수 천 명에 다다른다. 1995년에 처음 학과가 개설된 이래 겨우 1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해 볼 때 엄청난 양적 팽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security 관련 업체나 학계의 엄청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경비업계는 엄청난 기술적,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경비업체의 말단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경비원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경비업체인 에스원, ADT캡스 등의 소속 직원들 중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출동요원이나 관제요원의 수준은 그 회사 일반직원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며 이들 회사는 소속 현장출동 직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그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security 학계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에 있는 security 관련 학과는 대부분 체육계열로 소속되어 있으며, 학생들 모집도 대부분 무도 실기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다. security 학과를 지망하는 예비 대학생은 물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도 대부분이 security 관련 학과에서는 무도 등 운동관련 지식이 앞으로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으로 알고 무도에 전념하며, security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지식에 대한 공부에는 그 비중을 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전공자들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체력과 운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문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호학은 학문 분류상 사회과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기계경비론, 민간경비론, 경찰행정학 등 다학문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처방적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경호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향에 맞도록 지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대학 분야에 경호관련 학과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방향도 문제가 되며 소속 교수들의 관심 분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경비업 분야의 눈부신 양적·질적 팽창을 이루었고 1995년에는 대학에 security 관련 학과가 개설된 이후 우후죽순

처럼 관련 학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경호학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공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세계 각 나라는 국가 전체의 security 수준을 높여서 국가안보차원에서까지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security 능력을 제고시키고 심지어는 국방의 분야에 까지 민간부분을 참여시키고 있다. 9.11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바로 대테러 문제이다. 유엔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별 국가들 모임체에서 다뤄지는 주요 의제 중 테러 부분은 빠지지 않는다<sup>1)</sup>.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 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하지만 경호업체가 무수히 늘어나고, 경호관련 학과가 수 십 개가 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실과의 협조관계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껏 대통령 경호는 국가적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왔으며 대통령 경호실법에는 보안을 이유로 경호실 출신 교수들이 경호와 관련하여서는 경호실의 허락을 득해야만 논문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sup>2)</sup>.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 경호실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 주관으로 경호실 출신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sup>3)</sup> 중요한 경호행사에는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경호위해요인을 사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학문 연구를 하는 대학과 실제 학문을 적용하는 행정부서와의 연계·협조 강화가 바로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이 지나치게 관련 행정부서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호관련 학과의 짧은 역사와 발전 현황을 볼 때 기존에 이미 학문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다른 실용적 처방적 학문(경찰행정학 등) 분야와는 달리 어느 정도 관련 행정부서와 연계를

- 1) 2005. 11 18-19 간 부산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도 테러 문제가 주요 의제 중의 하나였다.
- 2) 대통령 경호실법 제9조(비밀엄수) 제2항에는 경호실 소속공무원(퇴직자 포함)이 경호실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김두현은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며 동 조항의 독소적 요소를 제거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두현, 2005: 11).
- 3) 2004년 이후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실 출신 교수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경호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논문 발표 및 경호실 직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통한 일정 수준의 협력 강화는 경호관련 학과가 조속히 대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개방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업체를 선도하고 경호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국가 차원의 security 전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결국 대통령 경호환경을 경호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테러시대에 있어서 보다 완벽한 대통령 경호임무 완수라는 경호실 조직의 목적 달성과 함께 관련 산업계의 발전 및 대학의 경호 관련 학과의 동반 발전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 II. SECURITY 업계와 학계의 실태 및 문제점

### 1. 경호경비업계의 실태 및 문제점

2005년 6월 현재 총 2,418개의 경비업체 법인 중 시설경비 2,290개사, 신변보호 301개사, 호송경비 42개사, 기계경비 141개사, 특수경비 36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경비원의 배치현황은 총 117,668명의 경비원 가운데 시설경비 103,356명, 신변보호 2,802명, 기계경비 6,427명, 특수경비 2,95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첫째 9개의 용역경비업체와 5,022명의 경비원이 활동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 민간경비업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이며 여러 학자들은 논문·저서를 통해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진석(2005: 54)은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 ① 경비업체의 영세성(전 업체의 약 90% 정도가 경비원수 100명 이하)
- ② 인력경비에의 지나친 의존
- ③ 경비시장 개척의 한계
- ④ 전문성의 부재
- ⑤ 경비기기제조업의 지원 부실
- ⑥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
- ⑦ 경비관련 보험제도의 미비
- ⑧ 경비분야 연구인력 부족
- ⑨ 전문 관리감독기관의 부재
- ⑩ 경비업계의 인력난
- ⑪ 경비원의 최저임금이상의 보수 확보 문제
- ⑫ 경비원의 사회적 지위 저하

⑬ 경비업체의 덩핑 수수 실태 만연

김태환(2005: 76-83)은 민간경비업체의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법적 제도적 측면이다. 우선 법체계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운영의 제도적 이원화로 인해 경비의 효율성·통일성·일관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휘·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비업무는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지휘체계, 보수, 법집행권한,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원화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경비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공공업무가 특수경비원이라는 제도로 민영화가 이루어져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이 안심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과감하게 민영화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전문성을 계고시켜야 한다. 또한 경찰과 공무원의 단속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안전 관련 사건·사고는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원 제도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적 측면이다. 경비업체가 과잉경쟁을 벌여 결국 덩핑입찰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인해 민간경비원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저임금은 전문가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저임금의 비전문적 인력고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민간경비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비지도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경호학과 유일의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경호학과 졸업생의 진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경비업체가 마케팅 능력과 전략 부재를 지적한다.

셋째, 학문 연구적 측면이다. 우선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회에서의 연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경호경비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이 경호분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과가 대부분 경호관련에 치우쳐 있어 민간경비의 전문인력 배양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경호학과라고 하고 있는 대학은 한 두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교과목을 보면 경호분야 보다 기타 민간경비·기계경비 과목이 더욱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기타 경찰경호, 경호행정, 경호비서 등 명칭을 갖고 있는 대학도 실제 교과목을 보면 신변보호 개념의 보디가드 과목인 경호과목은 몇 과목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계경비, 민간경비 등 과목이 경호관련 과목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

넷째, 관련기관과의 관계 측면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심지어는 공경비 분야에서 민간경비 분야를 파트너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공권력 우위 현상과 유일한 경비업체들의 모임체인 한국경비협회의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용인대학교 경호학과는 교과과정을 보더라도 무도관련 과목을 제외하고 순수 경호과목은 경호학개론, 경호방법론, 경호정보분석론, 경호실무, 경호경비법, 경호세미나 정도이고 민간경비 관련 과목은 민간경비론, 기계경비기획설계, 안전관리학, 소방학, 기계경비실습, 테러학, 경호비서실무, 경호경비산업론 등이다.

## 2. 경호관련 학계의 실태 및 문제점

1995년 한국체육대학에 안전관리학과가 개설된 이후 2005년 말 현재 약 40-50여개의 대학에서 여러 명칭 아래 학과를 개설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sup>5)</sup>.

하지만 수 십개의 대학에서 경호관련 학과를 개설하였고 앞으로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나 경호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호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경호학의 범위는 넓게는 safety와 security 개념을 통합할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protection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기계경비를 포함한 민간경비를 동시에 가르치는 학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경호학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명칭의 경호관련 학과가 채택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내용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경호학을 체육의 한 분야로 인정하면서 경호무도와 체육 관련 과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경호와 함께 의전을 중요시 하면서 경호학과 함께 비서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김두현은(2005, 9) 경호학을 특별행정학이라고 정의하면서 경호학이란 경호행정법의 규범을 고찰하는 것으로 경호행정이라는 사실을 정책적,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경호학은 사회 제현상과 경호업무와의 제관계에 있어서의 일반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기술 및 그 적용을 탐구하는 경호학술적 사회과학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의에 동감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경호가 체육학의 일부라는 학문적 정의는 경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경호관련 학과의 전임급 혹은 강사급 교수가 경호 또는 경비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적 또는 실무적 지식이 별로 없으면서도 경호분야의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경호관련 분야의 학생 모집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전문가가 경호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경호학과 전체의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고 학과의 수준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사회에서 경호관련 학과 및 졸업생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부메랑효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경호관련 학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의 질적 저하 문제이다. 40-50여개의 경호관련 학과의 신입생 선발은 대부분이 무도전공자를

5) 김두현(2005, 전게서: 11)은 약 40여개의 대학에서 경호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김태환(2005, 전게서: 81)은 4년제와 2년제를 합쳐서 50개를 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대나 한세대 같이 경호관련 교육과정은 개설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경호라는 명칭을 학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과의 명칭도 경호학과, 안전경호학과, 경찰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비서학과 등 다양하게 정하고 있으며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도 대부분 에체능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경남대 같은 경우 법정대학에 속해 있으며 중부대는 2006년부터 경찰경호대학을 단과대학으로 독립시켜 경찰행정, 경찰법학, 경찰경호학과 등 3개 학과로 출범하였다.

대상으로 하여 무도 실기로 선발을 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결과로 경호학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사회과학의 학문을 받아들인데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교수들의 강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의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관련 교수진의 전문성 향상이다. 학문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경호관련 학과를 선호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도 보안전문가를 선호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지리적 약점을 갖고 있는 대학의 제외하고는 신입생 유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소속 교수들 스스로가 전문성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경호관련 학과의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경호관련 학과 간의 커리큘럼 통일의 문제이다.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명칭을 달리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의명은 같은데 학교마다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반복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일된 교과목을 지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과목을 통일하고 동일 교과목에서는 동일 내용을 가르치는 통일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 Ⅲ. 대통령 경호실 교육프로그램 강화 방안

이러한 경호경비분야 산업체와 학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분야의 최고 기관인 대통령 경호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경호경비 분야의 전문성이 뒤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민간부문의 수준이 공공부문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우월적인 기술자 자급력을 갖고 있음을 볼 때 경호실이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대통령 경호실이 산업체와 학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경호실과의 연계 강화가 경호경비분야 산업계나 학계의 발전에 절대적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이나 산업체가 관련 행정부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무리 처방적 기능을 가진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일방적이고 지나친 의존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경호경비 분야는 학문적으로 최근 신설된 분야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완전하게 갖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학문적영역이나 산업체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산·학·관 협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산·학·관 각 분야가 서로 협력하여 경호경비 분야가

6) 경남대의 경우 소속은 법정대학에 있으나 학생선발은 무도 실기로 하고 있으며, 중부대학교의 경우도 경찰경호대학 소속으로 학생들에게 행정학사를 주고 있으나 역시 신입생 선발은 무도전공자를 대상으로 무도 실기로 선발하고 있다.

완전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경호실과의 협력방안은 이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1. 가칭 경호캠프의 개설 검토

현재 대학에서의 경호관련 학과의 커리큘럼과 실제 대통령 경호실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경호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이 각 대학 간 서로 다르고, 과목 명에 대한 통일성도 없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고 그저 학생 모집에만 급급하면서 경호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앞으로의 진로 설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경호관련 학과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대기업의 안전관련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통일성의 문제는 시급하다. 경호관련 학과가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의 안전 분야로 진출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경호역량은 강화될 것이고 경호환경을 대통령 경호실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대테러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프로그램의 명칭은 가칭 "경호 캠프"라고 하였다. 일정은 2박3일에서 3박4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시청각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호실의 업무 내용과 교과 과정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경호관련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까지도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현장 관람을 통해 선진 보안 기법을 소개받고 현장 경비근무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경비 마인드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경호원으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이면서도 실제 습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호운전 기법의 습득 문제이다. 경호를 의뢰하는 경호 대상자의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가장 사고의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바로 교통사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회 저명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7)</sup>.

경호운전(Protection Driving)의 내용 중 전문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되는 정면강습, 측방강습, 추적강습 등의 다양한 차량 기동 간 공격에 여러 형태로 대응하는 고속회피기동(Evasion Maneuver)의 능력을 갖추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실제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7) 2005년 11월 18일에도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의 3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는 누구라도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방어운전(Defensive Driving)을 위한 안락하고(Comfortable Driving) 안전한(Safe Driving) 운전기법의 학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장기봉·조광래, 2005: 102~103). 경호실 경호캠프에 미래의 경호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고속회피운전(Evasive Driving) 기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실습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 사격 등 경호학과 학생들이 시설상의 문제로 실습이 어려운 과목에 대한 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경호학과 학생들의 실기 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도록 과목을 편성하는 것도 요구되어 진다.

## 2.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의 교류 방안 모색

2005년 현재 대통령 경호실 출신들 중 상당수가 경호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담당하였던 경호관련 실무 경험을 경호이론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호실 출신이 아니면서도 민간부문에서 연구 환경이 어려웠던 시절 힘겹게 security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전파하기에 전념하는 교수들도 현직에 다수 포진해 있다. 이론과 실체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 업무 자체가 보안 사항이므로 민간부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소극적인 보안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민간부문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호경비 기법을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의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경비 부문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변화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껏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공공부문은 더 이상 민간부문에 비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호 부문만큼은 아직까지 민간분야에서는 생소하며 그동안 40년이 넘게 대통령 경호실은 전문적으로 경호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세계 어느 경호기관과도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능가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힘들게 쌓아온 경호경비와 관련된 절대적인 노우하우(know-how)를 민간부문과의 교류를 통해 일정부분 민간부문으로 넘겨준다면 민간부문의 경호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경호환경을 대통령 경호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 경호실과 대학 간의 교수 교류 방안을 제시한다. 경호실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호관들 중 이들을 파견받기를 원하는 대학교에 6개월에서 1년간 정도의 기간으로 직접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호관련 선진 기법 등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하는 한편, 동시에 학교 소속 교수들과 경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제 경호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학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

8) 2005년 11월 현재 경호실 출신 중 2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전임급 이상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총 1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도 20명에 이르고 있다 (김두현, 2005: 13)

에 현재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도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대통령 경호실에서 교수요원으로 위촉하여 경호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경호경비관련 실무 경험적 내용과 일반 사회의 경호 환경에 대한 생생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3. 기업 및 단체 대상 security 컨설팅 제공

국가정보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9)</sup>.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산업스파이를 통해 경쟁국으로 넘어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보안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정보원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보안의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고 보안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보안활동은 소프트웨어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대통령 경호실은 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문에 대하여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국가 최고수준의 통신보안<sup>10)</sup>, 검측, 기타 물리적·지리적·인적 취약요인에 대한 보안 활동의 능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안 기능을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 내에서만 보유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부문에 적용시켜 국가 전체 차원의 보안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기관인 The Secret Service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총기난사사고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예산 등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각 급 학교에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절한 보안대책을 세워주고 수준에 맞는 경비 장비를 추천해주면서 동시에 운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경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SS의 신뢰도를 제공시키고 있다.

컨설팅 제공과 동시에 경호경비분야 산업체에서 경호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안전대책을 계획·수립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킬 것을 제안한다. 지난 상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경호경비를 담당할 경호회사가 동 행사의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경호경비회사에 적용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대로 된 위협평가를 바탕으로 경호경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경호경비의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재 일부 대형 경호경비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한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경비분야 산업체의 중견 간부급 이상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혼잡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경비업의 내용들에 대해 사전 적절한 위협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이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기법들을 교육시켜 경호경비 분야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

9) <http://www.nis.go.kr/docs/indus/overview.html>

10) 여기서의 통신보안은 소프트웨어적 보안 개념보다는 도·감청에 대비한 보안활동을 말한다.

시키도록 도움을 준다면,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국가가 지불해야 할 안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방안이며 이것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일반 경호경비업체들이 향후 경호 활동시 적절한 경호환경 분석 및 위해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경호경비 대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제2의 상주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

이제는 국가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건물에도 건물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건물로 들어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여 위해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색에 있어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며 검색의 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검색의 중요성은 지난 9.11 테러 사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완벽한 검색이 있었다면 9.11테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ICAO가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보안검색 수준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검색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오히려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통령 경호실 주관으로 보다 구체적인 보안 검색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경호실은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검색 기능을 갖고 있다. VIP 행사에 있어서 사전에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저지함으로써 완벽한 경호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살테러 등 일련의 테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보안 검색은 필요하며 대통령 경호실이 주도적으로 검색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색기준을 제도화 하는 방안으로서 검색의 등급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우선 1등급으로는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항공법 제61조(폭발물 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검색하는 항공기검색 기준을 들 수 있겠다<sup>11)</sup>. 이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검색기준으로써 테러위험이 상당한 시설물이나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등급 수준으로는 현행 국가 중요기관이나 시설에 필요한 검색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권총 등 총기류 정도의 크기나 무게를 가진 물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장비 수준을 높이고 검색대 운용과 X-Ray 판독 요원들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3등급으로는 일반 트렁크 정도 크기의 위해물품을 적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평소 검색 수준으로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여 위해물품을 적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KTX 같은 시설물이 평소에는 4등급의 보안검색 수준이라고 하겠으나 테러의 징후에 따른 보안 수준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다만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경호실 주관으로 관련 전문기관들의 체계적인 검

11) 기내반입 제한 물품기준표에 의하면 도검류의 경우 5.5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를 거쳐서 분명한 보안검색 등급을 지정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등급에 맞는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검색전문가를 고용하여 철저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보안검색 전문가 양성 기관도 없으며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보안검색 등급 결정과 함께 국가가 공인하는 보안검색사 자격증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격증은 경비지도사 제도와 함께 경호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보안 검색과 관련한 산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5.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

이러한 연구에 앞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대통령 경호실 교육훈련기관의 확대이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확대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2)</sup>. 여기에서의 논의는 대통령 경호실 교육훈련기관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되어서 외부의 훈련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다.

경호실 소속 인원만을 교육하겠다는 틀에서 벗어나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한 연수 교육 뿐 아니라 경호경비분야 산업체 및 유관 단체 소속원들에게 까지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경호실 직원들 중에서 정식으로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박사급까지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호원은 민간부문의 잦은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성을 배양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경호경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학·관 간의 합동 세미나 개최 및 관련 학술논문집 발간 등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경호실 교육기관이 단순히 외형적인 경호실 확대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국가 치안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대테러 차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 확대에 대한 정치권을 포함한 일부 집단의 반발이 있다면 이는 산·학·관 차원에서 설득하여 교육기관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6. 장기발전방안 검토

경찰의 경우 관련 학과인 경찰행정학과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경찰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현직 경찰관과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각종 경찰관련 위원회를 활용하여 학계와의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경호관련 최고 정부기관인 대통령 경호실은 그동안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보안 우선의 명

12) 하나의 모델은 자체적으로 석·박사 학위과정까지 두고 내부 소속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외부의 교육생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대학원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목하에 민간부문과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교류 단절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호경비 역량이 강화된 현재에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직접적으로 경호관련 산업체나 학계에 지원하는 것이 결코 보안에 위배되거나 경호실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전 국민을 경호요원화하고 경호환경을 개선시켜 근본적으로 경호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민간부문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에게 경호실 입사 시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장기 발전과제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지적한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배부하며 동시에 경호실 채용에 있어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경호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의 통일 및 과목내용도 경호실과 상호 협조하여 경호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통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비지도사 시험자격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실무경력 몇 년으로 1차 과목을 면제하는 수준으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나라도 현재 경찰청 소속의 101 경비단이 청와대 경계 구역을 경비하고 있는 것에서 직접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칭 제복경호과는 9급 공채로 선발하여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을 7급 공채로 뽑는 것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대통령 경호 업무와는 달리 어느 정도 단순한 업무인 청와대 외곽경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7급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치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외곽경비요원은 9급으로 신입 공채하고 이러한 9급 외곽 경비요원을 공채할 때 대통령 경호실이 요구하는 내용과 과목을 커리큘럼으로 정해서 미리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획득한 경호학과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는 제도 등이 현실화된다면 학과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소속 교수들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로 바뀌어 갈 것이다.

## IV. 결 론

지금껏 대통령 경호실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볼 때 우수한 작전능력과 경호원들의 개인적 능력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경호기관으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더 이상 공공부문이 정보의 독점 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경호환경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경호경비의 우군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우수한 전문지식

으로 무장한 경호학과 졸업생들을 양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security의 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할 때 국가의 security 역량은 강화되고 경호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이 이제 보안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만의 영역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 양상과 비교하여 볼 때 맞지 않다.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경호행사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선진 경호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장점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경호실만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민간부문과 공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실의 교육기관을 확대시켜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호학과의 현실이 학생들에게 무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과가 체육계열로 편성되어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경호실의 교육 프로그램은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경호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경호의 개념을 이해시켜주고 앞으로 경호분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하여야 하는 가를 알려줌으로써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교수들에게도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경호실과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호실의 선진 경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경호실의 교수요원들을 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호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경호관련 학과의 교수들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게 현장감 있는 민간부문의 지식과 동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호실에 직접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호실과 관련 학과간의 정보가 교류되고 경호관련 지식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으로는 산업계와 경호실 간의 교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호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과 보안기술을 산업체나 관련 단체에 전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규모의 경비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영세한 경호경비업체인 것이 우리나라 경비업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경호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산업체나 관련 단체에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치안능력을 향상시켜 곧바로 사회전체의 경호역량이 제고되고 결국 경호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경호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지식 중 하나인 보안검색에 있어서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라는 것이다. 현재 KTX 같은 경우는 테러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물리적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테러 전문가들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안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KTX의 특성상 고속으로 달리다가 테러 혹은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철도보다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KTX에는 일정 수준의 보안검색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실이 주도적으로 보안검색을 등급화하여 각 시설별로 등급에 맞는 보안검색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을 실시한다면 대테러 측면이나 기타 국가 security 측면에서 상당한 예방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호실이 이러한 산·학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일정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호실 교육기관의 확대가 선결 과제이다. 외국의 경호기관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과 국내 다른 법집행기관인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의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경호교육기관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이나 선행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대통령 경호실이 개방화 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과의 교류의 폭이 확대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두현(2005). "경호학의 발전과 전망".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부 신설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 김두현(2004). "경호학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통령경호실법 규정 위헌성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2(4).
- 김두현외1(2002).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 김정환·서진석(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 I)」.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 김태환·박옥철(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69-98
- 서진석(2005).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상원(200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6  
호: 67-102
- 장기봉(2001) "21세기 국가경호기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기봉·조광래(2005). 「경호경비실무론」 경북: 대경사
- 주일엽·조광래(2004). "형법범죄 중 5대 범죄와 민간경비 간의 관계", 경호경비연구 제8호
- 대통령 경호실 홈페이지 [www.pss.go.kr](http://www.pss.go.kr)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www.nis.go.kr](http://www.nis.go.kr)
- 미국 대통령 경호실 홈페이지 [www.secretservice.gov/](http://www.secretservice.gov/)
-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www.ksan.or.kr](http://www.ksan.or.kr)



## ABSTRACT

###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Education Programs for Industry-Academy-Governmental Cooperations

Cho, Kwang Rae

In modern society, private securities have developed their capabilities continuousl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not only security industries have been considerably expanded in quantity, but also plenty of scholars published diverse papers relating to security problems, qualitative growths of private securities have not accomplished fully.

Especially, securing the President would not be guaranteed only by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order to secure the Presiden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for all the social parts to strive to protect the President. In this respect, improving private securities, including academic fields, might be critical so as to succeed in securing the President. Without the supports from private securities, there might be lots of security problems in nation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cooperation among PSS, private security industries and academic fields: (1) Providing a lot of practical knowledge from PSS to college students, (2) Personnel exchange between academic parts and PS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securing the President, (3) Furnishing divers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security to private securities, (4) Formulating security-searching standards, (5) Expanding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PSS.

**[Key Words : safe guard, security,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rivate security, security educational program]**